우크라이나사태가 국내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1. 머리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9일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국제곡물시장동향, 우크라이나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해 일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었으나, 총 곡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재고확보수준[1]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2] 그러나 우크라이나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곡물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른 곡물가격상승 등으로, 국내축산부문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유럽의 곡창지대로, 양국이 수출하는 곡물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칼로리의 약 12%에 달할 것으로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밀의 약 30%, 옥수수의 약 20%, 해바라기기름의 약 80% 이상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내축산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합적인 요인이기는 하나, 이미 국내의 축우용 배합사료가격이 지난 3월 16일에 kg당 42원 상승했으며, 금후에도 추가적인 가격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이에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책자금[4]의 금리인하 및 지원규모확대, 사료원료의 배합비율조정 및 대체가능원료에 대한 관세할당량의 확대, 국내반입 시의 신속한 통관수속지원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하 우크라이나사태가 국내 축산부문, 특히 낙농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곡물가격상승이 낙농에 미치는 영향

<그림 1>은 최근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의 주요곡물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이후 곡물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

1) 사료용 밀은 7월말, 사료용 옥수수는 5월 중순까지 필요한 양을 확보한 상태.
2)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며, 이는 사료용 밀과 옥수수 연간 총수입량의 약10% 수준인 1,722만 톤(2019~2021년 평균)에 달함.
3) 농협사료가격 기준임.
4) 2022년도의 원료구입자금지원액은, 사료의 경우 647억 원에 달함.

중국의 수입량급증, 남미의 기후문제로 인한 옥수수 생산량감소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함으로써 2022년에 들어와, 주요 사료곡물 중 옥수수를 중심으로, 밀, 대두 등의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림 1> 주요곡물의 국제시장가격동향

출처: http://www.krei.re.kr:18181/new_sub01

따라서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낙농을 포함한 국내 축산부문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2020년 현재 낙농가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은 54.9%(농후사료 21.4%, 조사료 15.9%, TMR 17.6%)로, 대가축 중 가장 높다.[5]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사료곡물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낙농가의 경영압박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표 1>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국제곡물시장의 가격상승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까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표 1> 우크라이나의 곡물 및 유지류 수출추이(단위: 만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최근 3개년 평균(2018-20)		
								對세계		對한국
								수출량	점유율	
옥수수	16	280	289	1,905	2,144	2,536	2,795	2,492	13.6%	59
밀	20	601	430	1,345	1,637	1,390	1,806	1,611	8.5%	62
해바라기유	58	85	213	394	559	548	686	597	42.6%	1
보리	86	350	459	463	360	239	505	368	10.4%	0
유채	7	18	118	143	244	304	238	262	11.4%	0
대두	1	17	20	220	224	296	179	233	1.5%	0

출처:
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9f646ccb-fe49-48ea-90b9-9c9d4c7d6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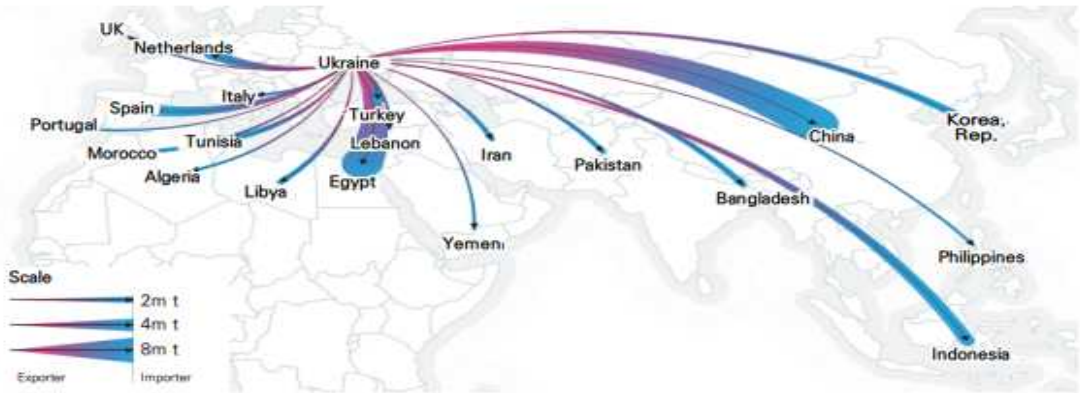
5) 2020년 현재 대가축의 사료비 비중을 보면, 낙농(54.9%), 육우(52.1%), 한우번식우(46.1%), 한우비육우(35.1%) 순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곡물수출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중단될 경우, 미국 등 타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수요증가로, 수입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약 70%가 농지로, 유럽의 곡창지대이며 세계적인 곡물수출국이다. 미 농무성이 발표한 2020~2021년에 걸친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량을 보면, 옥수수가 2,300만 톤으로 세계 4위, 밀이 1,600만 톤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사태가 낙농을 포함한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2020년 현재 원유로 환산한 연간 1인당 우유소비량은 83.9kg에 달해,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우유자급률은 48.1%로, 일본의 60.9%를 하회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사료가격상승이 낙농가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생산기반이 더 이상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우크라이나의 곡물개황 및 주요 수출국

미 농무성이 2022년 3월 9일에 발표한 「세계농업수급예측(WASDE)」에 의하면, 2020/21년도의 세계전체 곡물수출량 중,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를 합하면, 밀이 약 30%, 옥수수가 약 20%를 차지한다. <그림 2>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주요 수입국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거의 세계 모든 곳으로 수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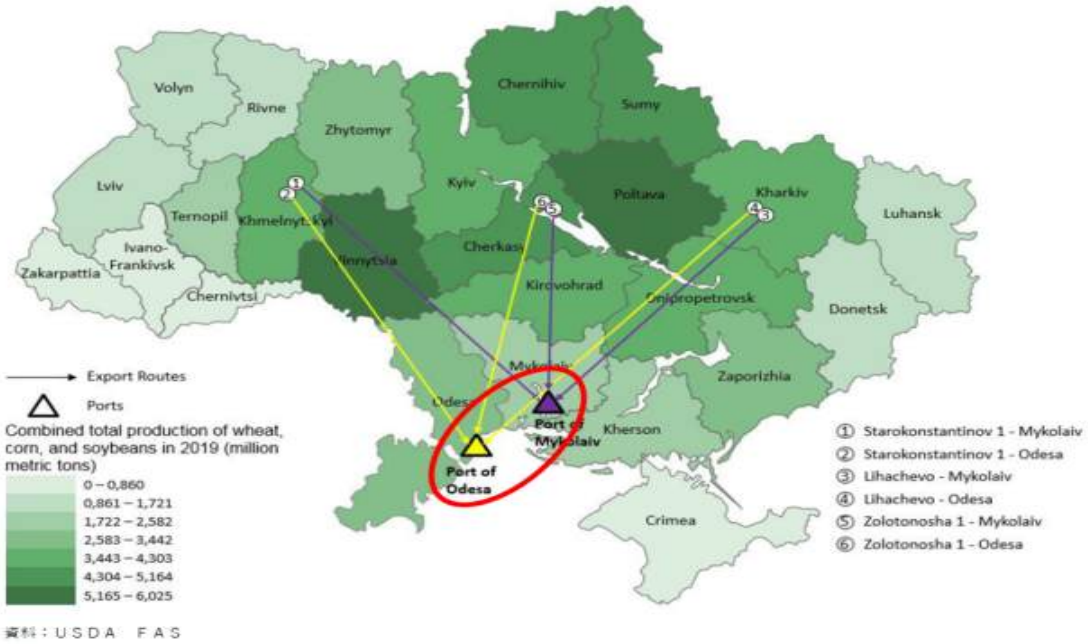
<그림 2>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주요 수입국

출처:
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9f646ccb-fe49-48ea-90b9-9c9d4c7d6883

우크라이나산 밀의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에집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모로코 등이다. 또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EU, 이집트, 이란 등이다. EU의 경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역내 수입비중이 약 10%에 달하며, 밀은 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EU도 우크라이나사태로 축산부문에 대

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주요곡물의 수출항은 흑해연안의 오데사(Odesa)와 미콜라이우(Mykolaiv)로, <그림 3>의 붉은 원으로 표기된 항구도시이다. 그러나 이들 항구도시는 2022년 3월 18일 현재, 수출을 위한 선박통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농업정책·식량성」의 정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국내소비를 위해 충분한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춘파작물의 작부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작물파종을 위한 충분한 종자와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요작물과 비료수출금지 및 허가제를 통해 정부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금후 어떤 형태로든 적지 않은 국제시장에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수출항구

자료: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212.html

한편 곡물수출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농업정책·식량성」 장관은 3월 18일자 성명을 통해, 서방국가에 인접한 몰도바 및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철도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러시아의 점령지역이 아닌 접경국의 흑해에 접하고 있는 항구를 통한 곡물수출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1개의 항구라도 확보해서 월 500만 톤의 곡물수출이 가능해지면, 곡물수출기회의 치명적인 상실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량성」의 정보에 의하면, 통상적인 작부면적의 50% 정도에 대해서는 봄철파종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20%는 불투명하며, 나머지 30%에 대한 파종은 단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료부족으로 인해 종자 등 생산자재의 배송이 어려울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춘파작물로서는 옥

수수, 보리, 해바라기 등이 있고, 밀은 가을에 파종하며, 수확시기는 7~8월이다.

화란의 농협계통 금융기관인 Rabobank는 3월 9일, 우크라이나정세가 국제곡물가격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즉, 정세변화에 좌우되겠지만,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해, 2022년도의 밀 가격은 2배, 식물성식용유가격은 20%, 옥수수와 보리가격은 30% 정도가 각각 상승하리라는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국제시장의 곡물수급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3월 상순부터이다. 전쟁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미 농무성의 세계곡물수급예측의 월별평가에 의하면, 2022년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량이 최소한 700만 톤 정도가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민을 위한 비축을 목적으로, 밀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오트밀과 수수, 메밀 및 소 수출도 금지키로 하였다.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곡물수급위기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가을에 수확한 옥수수와 같이 이미 수확이 끝난 곡물은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즉, 수출을 위한 항구 및 항로가 봉쇄되고 있으며, 무역회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운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국가의 전송망이 파괴됨에 따라, 저장고에 비축된 곡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및 온도조절장치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7월에 수확이 예정되는 밀은, 연료 및 노동력확보가 어려워 수확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농가는 종자 및 비료공급의 불안으로, 파종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가 세계최대의 비료수출국이나, 3월 상순에 수출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제시장의 곡물가격은 COVID-19로 인해 공급망이 압박을 받게 된 영향도 있으나, 우크라이나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다. 따라서 밀수입의 80%에 가까운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해 오던 아프리카 및 중동국가들은, 가격상승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국제시장의 곡물가격 또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금후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칫 빈곤국가에서 식량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4.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정책대응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라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사료용 옥수수의 국제시장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사료곡물의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용 옥수수가격은, 최근 중국의 수요증가 및 남미지역의 흉작에 따라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왔다. 이 같은 와중에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의 하나인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공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국제사료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사료용 옥수수와 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하더라도, 국제곡물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까지를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3월 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상승 및 수급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사료와 식품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 원, 식품 1,280억 원)의 금리를 기존의 2.5~3.0%에서 2.0~2.5%로, 0.5%p 인하키로 했다.

둘째, 사료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한 할당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겉보리 4→10만 톤, 소맥피 3→6만 톤, 3월).

아울러 이번 금리인하조치 이후 사료, 식품업계에서 원료구매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규모의 확대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업계.협회, 곡물공급상사, 관련기관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현지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산 계약물량(사료용 및 식용 옥수수)의 국내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2월 28일(월)부터 사료 및 전분당 업계와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업계재고 등 원료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선 변경, 대체입찰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사료업계재고(3.3일 기준 305만 톤)를 살펴보면, 사료용 밀은 7월 초순(계약물량 포함 시 '22.10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초순(계약물량 포함 시 '22.7월 중순)까지의 소요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사료용 밀·옥수수 계약물량 153만 톤 중 우크라이나산은 약 17.0%인 26만 톤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사료업계는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옥수수의 계약물량 26만 톤의 국내반입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체입찰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32.5만 톤(3.2일 13만 톤, 3.3일 19.5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재고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업체 간 소비대차[6]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부문이 필요로 하는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파급효과가 낙농을 포함한 축산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국제곡물시장동향, 우크라이나사태가 낙농을 포함한 국내 축산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 우크라이나의 곡물개황 및 농식품부의 정책대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국내 낙농을 포함한 축산부문이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후 우크라이나사태가 축산부문에 미치게 될 직·간접적인 영향을

6) 사료업체 간 재고물량을 서로 빌려주고 갚는 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올해 사료용 밀·옥수수 계약물량 153만 톤 중 우크라이나산이 약 17.0%에 달한다. 따라서 금후 우크라이나사태의 파급효과가 확대될 경우, 낙농가의 경영압박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사태가 낙농을 포함한 국내 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최근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인하를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낙농제도개선을 안건으로, 낙농진흥회의 이사회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그런 가운데 최근 낙농진흥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낙농문제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통한 생산기반유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사료곡물가격안정을,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규범에 준하는 낙농제도개혁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2/e779c36ea389f04c.html?_previewDate_=null&revision=0&viewForce=1&_tmpCssPreview_=0
2.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225/k10013500951000.html
3. https://wired.jp/article/the-war-in-ukraine-is-threatening-the-breadbasket-of-europe/
4. http://www.krei.re.kr:18181/new_sub01
5.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212.html
6. http://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9f646ccb-fe49-48ea-90b9-9c9d4c7d6883